

김장철 앞두고 배춧값 급등...“작년보다 2배 올라”

25일 기준 10kg 도매가 1.4만원...젓은 비와 태풍에 생산량 ↓

김장철을 앞두고 배춧값이 급등하고 있다. 올해 젓은 비와 태풍으로 생산량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25일 배추 10kg 기준 도매가격은 1만4050원이다. 1년전 7800원에 비해서는 2배, 최근 5년간 평균 가격인 5848원보다는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농업관측본부는 올해 가을배추 재배면적을 지난해보다 7% 줄여 1만2413ha로 내다봤다. 지난해

출하기 가격이 약세를 보였던 탓에 재배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젓은 비와 태풍도 영향을 줬다. 이달 출하된 준고랭지 2기작 배추의 경우 비에 따른 무름병, 바이러스 등의 병해가 발생하면서 평년보다 작황이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와 태풍의 영향으로 가을배추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9% 줄어든 127만2000톤에 그칠 전망이다. 통상 11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전남 배추 역시 태풍피해로 출하시기가

지연됐고 병해가 증가하면서 작황 부진이 예상된다.

겨울배추 재배면적도 줄어들면서 수급 불균형은 겨울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겨울배추 재배면적은 지난해 보다 11% 감소한 4211ha로 추정된다.

농업관측본부 관계자는 “가을배추 주산지에 태풍의 영향으로 무름병, 뿌리썩음 등의 발생이 증가했다”며 “지역별로는 전남지역의 태풍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뉴스1



포스코건설,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 수주전 기선 제압

서울 강남 수준 설계안·최고급 마감재로 승부수

포스코건설은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에 앞서 서울 강남 수준의 최고급 마감재와 넉넉한 주차공간을 제시했다. 우수한 상품성으로 바탕으로 풍향구역이 광주의 새로운 랜드마크 단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사업조건부터 미래까지 꼼꼼하게 고려한 것으로 사업 성공은 물론 주거 문화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고 있다.

광주 북구 풍향동 600-1번지 일원에서 조성되는 이번 사업은 총 15만 2314㎡ 부지에 아파트 3000여 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공사비만 8000억원에 달한다. 앞서 지난 7일 시공사 입찰 마감 결과,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치열한 수주전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포스코건설이 조합원들에게 제시한 우수한 상품성이 조합원들의 이목을 끌어 시공사 선정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밟았다는 평가다. 최근 서울 강남권에 입주한 아파트도 시세를 이끄는 '결국' 최고급 상품 '여부'에서 갈리고 있어서다.

◆ 서울 강남 수준의 최고급 수입산 마감재 가격 제안

우선 포스코건설은 실내 구석 구석에 최고급 자재를 사용해 입주자들의 거주 풍격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주방에는 독일산 고급 수입가구인 노발리아 제품을 사용해 고급스러움을 높이는 안을 제시했으며, 주방 상판과 벽은 천연 석영(石英)을 원료로 사용하는 고품격 대리석인 브랜드(칸스톤 혹은 비아테라)를 사용할 예정이다. 욕실에도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제작한 세면대·양변기 제공, 욕실 수전은 독일 브랜드인 그로헤 제품을 선보여 멋스러움을 뽐낼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대 상호호에 슈퍼로이유리 등 프리미엄 창호를 설계와 특히 주방에서도 외부 조명이 가능한 '조방형 주방창호'가 도입되는 점도 돋보인다. 포스코건설은 대단지 개발된 고급 인테리어 내외장

재인 '포스마블'도 거실 아트월 선택 옵션으로 제공한다. 이 외에도 현관중문, 이태리산 도어락 올리버리, 수입산 원목 마루 조르다노 등 경쟁사를 압도하는 서울 강남 수준의 최고급 수입 마감재로 이 조합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업계 최초로 선보인 주택 분야 스마트기술 '아이큐택'가 적용되는 점도 특징이다. 아이큐택은 음성인식 스마트 홈 등 편리 기술 (AiQ Convenience), 입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 기술 (AiQ Safety),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정환기 시스템 등 건강기술 (AiQ Health) 등을 아우르는 스마트기술이다.

◆ 세대당 25대 전원 주택 같은 넉넉한 주차공간 마련

포스코건설은 대단지에 걸맞은 세대당 2.5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강남권 새 아파트도 주차 공간이 부족해 입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러한 민원을 '제로(0)'로 만들기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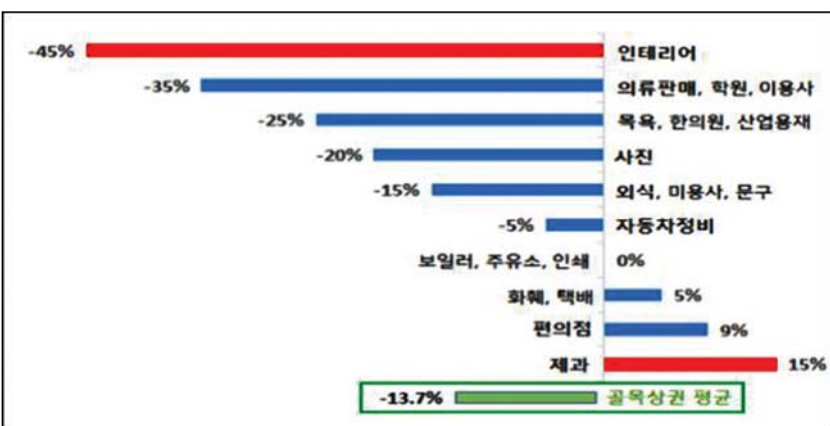
이 외에도 프랑스 파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는 '라 데팡스'에서 모티브를 얻은 '글로벌 게이트', 무등산 서석대와 능선을 건축적으로 해석한 아파트 형태와 배치, '100m 스카이 브릿지' 등 광주의 새로운 100년을 대표할 빼어난 외관이 설계된다. 축구장 4.5배 크기의 비엔날레 가든, 포스코 도서관, 인포네티폴 등도 관심거리다. 전 세대 남향 배치, 전세대 4베이 이상 실면, 판상형 세대 최대 등의 평면 구성에도 힘썼다.

아울러 포스코건설은 넉넉한 이주비 지원(LTV 90% 보장) 및 이주비 이자 지원 전액 무이자 등 조합원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 혜택도 내걸었다.

이 밖에도 광주 최고 일반분양가 보장, 일반분양 발코니 확장 수입 조합 귀속 등의 가격적인 조건도 내놓는다.

광주 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강남권, 한남동 등 최고급 아파트에서도 각종 규제로 고급스러운 설계와 상품으로 아파트를 짓는데 제약이 많은 만큼, 이번 포스코건설이 제안하는 풍향구역 재개발사업은 등급을 매길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자랑한다"며 "광주는 물론 아파트 건축사에서도 한 획을 그을 것으로 보여 조합원들의 선택이 포스코건설로 가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골목 상권 덮친 경기불황 그림자...“영세 소상공인 도산 우려”



주요 골목상권 업종의 경기가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2년 연속 두 자릿수 실적둔화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주요 골목상권 19개 업종에 대한 경기 전

망을 조사한 결과, 평균 매출 증감률은 2019년 -13.7%, 2020년 -15.8%로 전망됐으며 평균 순수의 증감률은 2019년 -17%, 2020년 -17.2%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와 비

교해 올해 매출액 감소가 예상되는 업종은 12개로 인테리어(-45%), 의류판매, 학원, 이용사(-35%), 목욕, 한의원, 산업용재(-25%) 등이다.

올해 경기악화(매출 또는 순수익 감소)를 예상한 15개 업종 대부분은 경기호전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15개 업종 중 11개 업종(73.3%)은 경기 호전 시기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응답했다. 그 외에는 향후 1~2년 내(1개 업종·6.7%), 2~3년 내(2개 업종·13.3%), 3년 이후(1개 업종·6.7%)에 경영 호전이 전망된다고 응답했다.

휴·폐업 전망에 대해서도 지난해보다 올해 골목상권 관련 점포 휴·폐업이 평균 4%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업종별로는 의류판매업(17.5%), 외식산업·문구·이용사(12.5%), 미용사·인테리어·주유소(7.5%) 업종 등의 올해 휴·폐업이 상당 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경영악화를 예상한 골목상권 협회들은 원인으로 '경기위축에 따른 판매부진'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동일업종 소상공인 간 경쟁 심화, 제품 원료·재료비 상승 등이 원인으로 제시됐다.

서울특별시 동부지역 제 882 회차 당첨결과 (2019년 10월 26일 추첨)

18 34 39 43 44 45 + 23

순위	당첨개입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5	4,127,270,400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44	78,168,000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보너스 숫자 일치
3등	2,082	1,651,966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109,226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1,839,873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기한 :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휴일인 경우 익일입금)

광주, 대한민국의 미래로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